

### 3·1독립선언서 인쇄과정과 판본의 검토

박찬승\*

#### 〈차 례〉

1. 머리말
2. '민족대표' 33인의 선정 과정과 시점
3. 독립선언서의 인쇄 일시와 부수
4. 독립선언서의 인쇄 과정
5. 이른바 '신문관판' 선언서의 정체
6. 맺음말

#### [국문초록]

3·1독립선언서의 인쇄 일시와 부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이른바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2종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밤 21,000부 인쇄되었을 뿐이다. 이종일이 썼다고 전하는 『목암비망록』에는 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따로 1만여 부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것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24일 밤이었고, 25~27일 사이에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민족대표의 명단이 들어간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담당한 보성사 사장 이종일, 직원 김홍규는 재판과정에서 모두 27일 밤 21,000매를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보성사 공장장 장호근도 일기에서 역시 27일 밤에 21,000매를 인쇄했다고 썼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27일 밤에 21,000매가 인쇄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인쇄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둘째, 3·1독립선언서는 2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조판하고 천도교의 보성사에서 이종일이 인쇄한 1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선언서에 2종이 존재한다는 오수열의 주장은 이종일이 재판과정의 초기에 자신은 오세창으로부터 독립선언서의 원고를 받아 이를 보성사에서 조판하여 인쇄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을 사실로 믿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종일은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조판하여 보성사에 전달해준 활판으로 인쇄하였다

\* 한양대 사학과 교수

는 사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았다. 이종일이 이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최남선이 중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세창이 자신은 이종일에게 원고를 넘겨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린도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조판한 활판을 이종일에게 넘겨주어 그것으로 인쇄를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이종일의 거짓말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결국 이종일도 뒤에는 사실대로 실토하고, 전에 자신이 말했던 것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종일이 오세창의 원고를 받아서 보성사에서 따로 조판, 인쇄한 선언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제어] 3·1운동, 독립선언서, 보성사판, 신문관판, 이종일, 최남선, 이병헌, 오세창, 오수열

## 1. 머리말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독립선언서(이하 ‘독립선언서’로 약칭)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공약 3장은 최남선이 쓴 것인가 아니면 한용운이 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언서는 여러 날에 걸쳐 35,000부를 인쇄하였는가, 아니면 27일 밤에만 21,000부를 인쇄하였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독립선언서에는 한 종류만이 있는가 아니면 이른바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sup>1)</sup> 이 글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48인’의 재판과정에서 이종일, 김홍규 등이 27일에 독립선언서 21,000부를 인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종일이 썼다고 전해지는 『목암비망록』(혹은 『옥파비망록』이라고도 한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35,000부를 인쇄했다고 기록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1운동 당시 재판과정에서 보성사의 사장 이종일과 인쇄 책임을 맡았던 김홍규는 일관되게 27일 밤에 21,000부를 모두 인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현희 교수가 발견한 이종일의 『목암비망록』에서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2만 5천 매를 인쇄하여 천도교 본부로 옮겼고, 27일 2차로 1만 매를 더 인쇄하여 역시 천도교 본부로 옮겼다고 썼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현희 교수는 이후 『목암비망록』의 원본을

1) 이에 대해서는 줄지,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다산초당, 2019), 155면을 참조할 것.

분실하였다면서 활자화한 『목암비망록』만을 세상에 내놓았다. 『목암비망록』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학계의 의견은 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독립선언서를 1차로 2만 5천 부 인쇄했다는 내용을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으로 나뉘었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선언서 인쇄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세 번째 쟁점은 과연 독립선언서에 두 가지 판본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두 가지 판본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언문 판본의 하나는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조판한 활판으로 보성사에서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도교의 보성사에서 다시 채자하여 조판한 활판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신문관 활자로 찍은 것을 이른바 ‘신문관판’이라 하고, 보성사 활자로 찍은 것을 이른바 ‘보성사판’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이른바 ‘보성사판’은 8장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른바 ‘신문관판’은 오수열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1장과, 천도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장 등 두 장밖에 없다.<sup>4)</sup>

이른바 ‘두 가지 판본설’은 고서 수집가 오수열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86년 『조선일보』는 오수열의 말을 인용하여, 독립선언서의 인쇄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도했다.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인쇄되었다. 26일 오후 최남선은 선언서의 활자를 조판하여 최린의 집에 가져다주었고, 연락을 받은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공장장 김홍규를 시켜 활판을 가져오게 하여 그날 밤

2) 인용하는 1985년에 펴낸 책에서 『목암비망록』의 기록을 따르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의 이종일의 진술에 따라 독립선언서는 27일 밤 2만1천매가 인쇄되었다고 썼다(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을유문화사, 1985) 261면). 최근에 나온 권보드래의 책에서도 역시 이종일의 법정 진술에 의거하여 21,000매설을 따랐다(권보드래, 『3월 1일의 밤』(돌베개, 1919), 43면). 그러나 이현희는 1987년에 쓴 글에서 두 번에 걸쳐 3만5천 매를 인쇄했다고 주장했다(이현희, 『민족대표 이종일』, 『통일한국』 44권(1987), 100면). 오용섭도 『목암비망록』을 인용하여 3만5천 매를 제작하였다고 썼다(오용섭, 『3·1독립선언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1(2017), 204~205면). 박춘석도 이종일의 전기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다(박춘석, 『옥과 이종일』(태안향토문화연구소, 2008), 181~182면).

3) 오수열, 『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인쇄 경위』 『인쇄계』 137호(1986년 3월), 35~36면. 이정은, 『국가지정기록물이 된 3·1운동 독립선언서』 『기록인』 vol.34(2016), 94~95면.

4) 오용섭, 『3·1독립선언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1(한국서지학회, 2017), 211면. ‘보성사판’으로 확인된 것은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 독립기념관,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 이회선, 박종화, 최봉렬, 최학주 등의 소장본이다. 이정은은 각주 3)의 글에서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수열 기증본 외에도 2004년 상주에서 발견된 프린트본 선언서도 ‘신문관판’이라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수열이 소장하고 있던 ‘활자인쇄본’과는 다른 ‘프린트본’이다. 따라서 이는 ‘신문관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인쇄에 들어갔다. 이 조판은 주시경의 맞춤법에 따라 쓰여 있었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었다. 이종일은 이병헌을 시켜 인쇄 도중에 인쇄물 견본을 오세창에게 가지고 가도록 했고, 이를 받아본 오세창은 두 군데(박탈, 선양)를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이병헌은 곧장 인쇄소로 뛰어가 인쇄를 중지시키고 두 곳을 고쳐서 인쇄를 완료했다.” 이것이 오수열이 주장하는 ‘신문관판’의 인쇄 과정이다. 오수열은 또 “오세창은 ‘신문관판’의 활자 크기, 철자법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고를 옛 철자법으로 고쳐 써서 27일 오후 5시에 다시 이종일에게 보냈고, 이종일은 활자를 좀 더 크게 다시 채자하여 이를 인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보성사판’이라고 오수열은 말했다.<sup>5)</sup>

오수열의 이러한 주장은 그해 그가 『인쇄계』라는 잡지에 쓴 「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인쇄 경위」라는 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인쇄 날짜는 2개의 판본이 모두 27일 저녁이었다고 다르게 썼다. 그 근거는 ‘이병헌회고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일보』에 실린 오수열의 첫 번째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2월 26일 밤까지는 아직 ‘민족대표 33인’의 명단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6일 밤에 33인의 명단이 들어간 선언서를 인쇄할 수는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또 최남선이 주시경의 맞춤법에 따라 원고를 썼다는 것이나, 오세창이 이를 다시 구식 맞춤법으로 고쳐 써서 27일 다시 인쇄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1994년에 문화재관리국은 독립선언서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립국어연구원에 박종화 소장본(이른바 ‘보성사판’ 형식)과 오수열 소장본(이른바 ‘신문관판’ 형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어연구원은 오수열 소장본은 1933년 한글철자법 제정 이후의 표기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sup>6)</sup> 1996년 문화재관리국은 당시 독립기념관 소장의 보성사판 선언서를 문화재로 지정하려 추진하다가 국립국어연구원의 지적, 민족문제연구소의 비판(최남선의 친일 행적 이유) 등으로 이를 중단했다.

이후 오수열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족은 오수열 소장본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

5) 「67년만에 밝혀진 기초 인쇄 배포 비화」, 『조선일보』 1986년 3월 1일.

6) 국립국어연구원이 문화재관리국에 보낸 공문(1994년 4월 7일자, 「독립선언서 검토」).

였다. 국가기록원은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 관련 자료 48종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는데, 이때 독립기념관이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보성사관’과 함께 오수열 유족 기증본을 ‘신문관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문관관’ 독립선언서에 대해 학계의 충분한 검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문관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의 명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시점은 언제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인쇄의 일시와 부수 문제를 다루고, 끝으로 오수열이 소장하고 있던 이른바 ‘신문관관 선언서’의 정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민족대표’ 33인의 선정 과정과 시점

천도교측의 최린과 기독교측의 이승훈, 함태영은 2월 24일 회담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후 최린과 함태영은 28일까지 매일 만나서 운동의 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독립선언서와 독립의견서(일본 정부, 의회, 총독부에 보낼 것), 독립청원서(미국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것)는 최남선이 이미 다 준비해둔 상태였다. 기독교측은 27일 이 문서들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특별한 이의 없이 모두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독립선언서와 의견서·청원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의 명단을 확정하는 일이었다.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측의 민족대표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sup>7)</sup> 24일 양측의 합작 합의 이후에 양측은 26일 대표 선정에 들어간 것을 보면, 25일경에 민족대표의 숫자를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3인은 어떤 경위로 선정되었을까.

천도교측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천도교 직원 김완규에 의하면, 2월 26일 정오

7) 이에 대해서는 줄재,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135~149면에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서술하기로 한다.

에 재동에 있는 김상규의 집에 권동진, 오세창, 최린, 권병덕, 나인협, 박준승, 홍병기, 양한묵, 이종훈, 홍기조, 김완규, 나용환, 임예환 등 13인이 모였다고 한다. 이종일은 독립선언서 인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손병희를 제외한 천도교쪽 서명자 전원이 모인 것이다. 이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일본정부와 총독부에 내게 될 의견서에 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sup>8)</sup>

그러면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명자로서 참여하게 된 것일까. 손병희는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내가 직접 권유한 사람은 없으나, 예수교측에서는 15인(16인의 착오인 듯-인용자)의 대표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권동진, 오세창, 최린에게 천도교측에서도 대표를 선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나는 이 일은 본심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동지로 할 수 없으니 그런 취지로 동지를 모집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sup>9)</sup>

천도교측에서는 손병희, 오세창, 권동진을 중심으로 서명자의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의 중앙 교단에서는 천도교 교주 손병희(58세), 보성교보 교장 최린(41세), 천도교 도사 권동진(58세), 천도교 도사 오세창(55세), 천도교 도사 권병덕(52세), 천도교월보 사장 이종일(61세), 천도교 장로 이종훈(63세), 천도교 도사 나용환(55세), 천도교 도사 홍기조(50세), 천도교 장로 홍병기(50세), 천도교 신도 겸 직원 김완규(43세) 등 11명이 ‘민족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천도교 도사 4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포섭에는 권동진과 오세창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세창에 의하면, 2월 22일 마침 천도교 기도회가 끝나게 되었고, 이때 손병희가 천도교 도사 5인을 불러들여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에서 온 천도교 도사 나인협(평안도 평양, 47세), 임예환(평안도 평양, 54세), 박준승(전북 임실, 44세)과 서울의 홍기조, 나용환이 ‘민족대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0)</sup> 또 권동진에 의하면, 2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자신의 집과 천도교당에서 천도교 도사 양한묵(전남 화순, 55세), 나용환, 나인협, 임예환 등을 만나 서명자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손

8) 「김완규 경찰신문조서」, 『3·1독립운동』 1(市川正明編), (原書房, 1983), 61면.

9) 「손병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204면.

10) 「오세창 검사신문조서」, 『3·1독립운동』 1, 126면.

병희가 이들을 만난 시점을 전후하여 권동진도 이들을 만나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오세창에 의하면, 김완규와 양한묵은 자신이 권유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나인협, 이종훈, 홍기조 등에게도 권유한 일이 있었는데, 이미 그들은 자신이 말하기 전에 이 일을 알고 참여하기로 한 상태였다고 한다.<sup>12)</sup> 또 권병덕에 의하면, “2월 21 일경 동대문 밖의 손병희의 집에서 동인이 이번에 조선독립선언을 하므로 거기에 가맹하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진술하였다.<sup>13)</sup>

이처럼 천도교는 손병희·권동진·오세창 등이 나서서 비교적 수월하게 민족대표 15명의 명단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손병희가 가진 권위와 천도교의 일사불란한 조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쪽은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파가 달랐고, 또 각 교파 내에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기독교측 민족대표 16인의 선정과정을 살펴보자.

2월 26일 정오, 기독교측 인사들은 독립선언서와 청원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강 인도교 옆 흑석동 입구의 한 일본인 음식점에 모였다. 마치 야유회 모임처럼 꾸며진 것이다. 이날 모인 사람은 이승훈(일명 이인환, 장로교 장로, 55세), 함태영(장로교 장로, 47세), 박희도(YMCA 간사, 30세) 오화영(남감리교 목사, 40세), 최성모(북감리교 목사, 46세) 안세환(평양기독교 서원 총무, 32세), 이갑성(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사무원, 31세), 이필주(북감리교 목사, 51세) 등 8명이었다. 이 가운데 안세환은 일본으로 가서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서명자 명단에서는 빠지기로 하였다. 또 이갑성은 아직 연소하고, 노모와 처, 그리고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할 처지이니 제외하고, 대신 상하이에 파견된 현순과의 연락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함태영은 선언서 발표 이후 서명자들은 모두 체포될 것이므로 남아서 서명자 가족들을 돌보는 일과 제2의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기로 하여 역시 제외되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민족대표’로 서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승훈이 2월 16일 밤 상경할 때, 서명 약속을 하고 인장을 전해 준 양전백(장로교 목사, 50세), 길전주(장로교 목사, 51세), 김병조(장로교 목사, 42세), 이명륜(장로교 장로, 47세), 유여대(장로교 목사, 41세) 등 5명과, 박희도가 인장을 받아온 신

11) 『권동진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229면.

12) 『오세창 신문조서』(고등법원예심, 제2회) 『3·1독립운동』 2(市川正明編), (原書房, 1984), 79면.

13) 『권병덕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254면.

홍식(북감리교 목사, 46세) 등 6명, 합하여 11명이 1차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5명이 아직 부족하여 다음 날 낮에 정동예배당의 이필주 목사 사택에 모여 추가 인원을 선정하기로 하였다.<sup>14)</sup>

2월 27일 정오 정동의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는 민족대표 5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저녁 독립선언서가 인쇄될 예정이었으므로,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갑성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줄 것을 간청했다. 이미 이 운동에 깊숙이 간여해온 그로서는 명단에서 빠진다고 해도 체포되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률가였던 함태영은 민족대표는 ‘내란죄’를 적용받게 될 것이고, 사형이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부 서명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임시 부양비를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할 정도였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이갑성 외에도 감리교 서울수표교회 목사 신석구(45세), 감리교 중앙교회 전도사 김창준(30세), 기독교신보사 총무 박동완(40세), 감리교 원산교회 목사 정춘수(44세)가 서명자로 추천되었다. 이들의 추천은 모두 받아들여져 기독교측 16명의 명단이 확정되었다.

이 가운데 정춘수는 그의 친구인 박희도가 본인의 승낙도 없이 추천한 것이었다. 따라서 27일 청원서에 인장을 날인할 때 그의 인장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28일 밤 서울에서 보내온 선언문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곧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튿날 오후 늦게 서울에 올라와 6일 경무총감부에 자진 출두하였다. 김창준(30세)의 경우, 26일 밤 박희도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27일 정오에 이필주 목사의 집에서 이갑성, 박희도, 박동완, 이승훈, 최성모, 함태영 등을 만나 서명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sup>15)</sup>

한편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이종일에 의하면, 27일 오후 최남선이 33인의 명단을 넣은 선언서의 활판을 인쇄소인 보성사로 전달해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명단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판사가 함태영에게 “금년 2월 27일에 이종일이 담당하여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최초에는 대표자 중에 김인전, 김지환, 안세환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에는 위 3인을 빼고, 김창준, 백용성, 신석구, 최성모를 넣었고, 세 번째에 박동완, 김병조를 넣어서 결국 33인이 되었

14) 김양선, 앞의 글, 255면.

15) 『김창준 검사신문조서』 「3·1독립운동」 1, 178면.



는데, 그 변경에 대해서는 이필주의 집에서 회합했을 때 결정했는가?”라고 질문하자, 함태영은 “그렇다. 변경했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최린에게 통고했다.”라고 답하였다.<sup>16)</sup>

판사는 이와 같은 명단의 변경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경찰이 보성사를 압수수색해서 독립선언서의 지형이 3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형마다 서명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판사는 “독립선언서의 지판에 의하면 최초에는 김지환, 안세환, 김인전이 민족대표 중에 들어 있었는데 그런가?”라고 묻자, 함태영은 “김지환, 김인전의 두 사람은 우리들이 대표자 중에 넣기로 했으나, 동인 등이 회합하지 못하였으므로 뺐고, 안세환은 도쿄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뺐다.”라고 답하였다. 함태영은 전주의 장로교 목사인 김인전을 전라도 대표로 넣고자 했으나 그와 미처 교섭을 하지 못해 넣지 못했다고 답했다.<sup>17)</sup> 또 개성남부교회 전도사 김지환은 개성 시위 준비 관계로 27일 서울에 올라올 수 없게 되어 YMCA간사 박동완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sup>18)</sup> 이처럼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몇 차례 서명자 명단이 교체되었고, 결국 명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이날 오후 5시(선언서 활자판이 보성사에 도착한 시간) 이후인 7시경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러면 불교측 민족대표 2명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 한용운(41세)은 강원도 양양군 신흥사의 승려로서, 1907년경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도쿄에 가서 조동종(曹洞宗)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비가 모자라 반년 만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때 그는 도쿄에서 최린과 만나 알게 되었고, 귀국한 이후에도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최남선과는 5,6년 전에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친하게 교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최린의 집을 자주 찾았는데, 1월 27,28일경에 최린의 집에 찾아가 구주전쟁과 강화회의, 민족자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조선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최린은 천도교 쪽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고 한다.<sup>19)</sup>

그 뒤 2월 20일경 최린이 한용운의 집을 방문하여 “천도교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16) 『함태영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제3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69면.

17) 위와 같음.

18) 김양선, 앞의 글, 256면.

19) 『한용운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388~389면.

로 하여,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면서, 운동의 방침으로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강화회의와 미국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보를 보내고, 또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용운은 “문서의 작성은 자네 쪽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일임하였다고 한다. 그 후 2월 24일 최린의 집을 들렀는데, 최린이 “기독교측과 합동하여 운동하기로 되었다.”면서, “독립선언서와 각지에 보낼 문서들도 완성이 되어, 미국대통령과 강화회의에 보낼 문서는 현순이 가지고 상하이로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sup>20)</sup>

한용운은 27일 경남 해인사의 승려로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백용성(55세)을 찾아가 천도교와 기독교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서명자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한다. 백용성도 이에 찬성하여, 한용운은 이를 최린에게 통고하였다고 한다.<sup>21)</sup>

이상에서 본 것처럼 천도교측의 서명자 명단은 26일에 이미 확정되었으며, 27일 낮에 서명자들이 김상규의 집에 모여 일본 정부와 중의원, 총독부에 보낼 의견서, 또 미국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청원서에 날인을 하였다. 기독교측에서는 27일 늦은 오후 또는 초저녁에야 서명자 명단을 확정할 수 있었다. 27일 밤 함태영은 정춘수를 제외한 15명의 인장을 가지고 최린의 집에 가서 날인하였다. 불교측의 한용운은 역시 27일 자신과 백용성의 인장을 가지고 최린의 집에 와서 서명하였다.<sup>22)</sup>

### 3. 독립선언서의 인쇄 일시와 부수

최린과 함태영은 최남선이 완성한 독립선언서, 독립의견서, 독립청원서 가운데, 독립선언서만 인쇄하여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립선언서는 2월 27일 저녁에 천도교 소유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인쇄에 들어갔다. 보성사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로서 천도교의 인쇄물만이 아니라, 일반의 주문을 받아 인쇄도 하였다.

20) 『한용운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389면.

21) 『백용성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397면.

22) 『최린 신문조서』(고등법원 예심) 『3·1독립운동』 2, 64면.

당시 직원은 장효근 총무, 박근채 서기, 김홍규 공장감독, 인종익 간사, 기타 사무원과 직공을 다 합하면 60명가량 되었다. 보성사는 당시 조선인측이 운영하는 인쇄소 가운데에는 가장 규모가 큰 인쇄소였다. 이종일은 대한제국기에는 제국신문사의 사장으로서 신문을 발행하는 등 출판과 인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성사의 사장과 『천도교월보』의 발간을 책임지는 천도교월보과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이종일에 의하면, 그는 20일 오세창으로부터 뭔가 시국에 관한 것을 인쇄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26일에는 오세창으로부터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그때 오세창은 이종일에게 서명에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sup>24)</sup>

그러면 선언서 인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종일은 3월 2일에 경무총감부에서 진행된 경찰신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문 : 그대가 인쇄한 선언서는 2만1천매라고 하는데, 그 전부를 2월 27일 밤에 인쇄하였는가?

답 : 그렇다. 하룻밤에 인쇄한 것이다.

문 : 그 선언서를 인쇄할 때 직공들에게 이러한 것을 인쇄하였다고 하는 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는가?

답 : 그렇다.

문 : 선언서는 어떤 직공이 인쇄하였는가?

답 : 그것을 인쇄하는 데는 기계 3대가 사용되었는데, 신영구(申永求)와 김홍규(金弘奎)라고 하는 직공에게 명하였고, 다른 직공은 누구를 시켰는지 알지 못한다.<sup>25)</sup>

위에서 보면, 이종일은 보성사에 있는, 한 시간에 3천 매를 인쇄할 수 있는 기계 3대를 사용하여,<sup>26)</sup> 27일 밤에 신영구, 김홍규를 시켜 21,000매를 인쇄했던 것이다.

23) 『이종일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예심) 『3·1독립운동』 1, 256~257면.

24) 『이종일 검사신문조서』 『3·1독립운동』 1, 131면; 『이종일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예심) 『3·1독립운동』 1, 257면.

25) 『이종일 경찰신문조서』 『3·1독립운동』 1, 56면.

26) 보성사에 근무하던 인종익은 당일 인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청주경찰서 신문에서 “2월 28일(27일을 착각한 듯-인용자) 하룻밤 사이의 인쇄로서 그 매수는 모르나, 아무튼 1대의 인쇄기계로 1시간에 3천 매를 인쇄해 내는 5대의 기계를 가지고 1시간 약 1만 5천 매씩 인쇄하는 방법으로 하룻밤

위의 진술에서 이종일은 일부러 장효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종일은 총무인 장효근만은 이 일에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석방시켜서 이후 보성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서지학자 오용섭은 이종일이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문은 2만 1천매가 아니라, 3만 5천매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종일이 쓴 『목암 비망록』에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2만 5천 매를 인쇄하여 천도교 본부로 옮겼고, 27일 2차로 1만 매를 더 인쇄하여 역시 천도교 본부로 옮겼다고 쓴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sup>27)</sup> 그러나 보성사의 사장 이종일이나 보성사 총무 장효근, 공장감독 김홍규가 모두 검찰 혹은 법원의 신문조서에서 27일 밤 2만 1천매를 인쇄했다는 것만 말하고 있다.<sup>28)</sup> 장효근이 쓴 『장효근일기』에서도 27일 저녁 선언문 2만 1천 매를 인쇄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sup>29)</sup>

또 오용섭은 3·1운동 당시 전주의 신흥고보 교감이던 유병민이 2월 24일 자정쯤에 졸업생으로부터 33인이 서명한 한 장으로 된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쓴 것을<sup>30)</sup> 근거로 『목암비망록』에서 24,25일에 1차 인쇄가 끝나서 천도교 본부를 거쳐 지방의 천도교당에 발송했다고 기록한 것을 사실로 추정하였다.<sup>31)</sup>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24일은 천도교와 기독교측이 연합을 위해 접촉하고 있던 시기로서, 24일에야 연합이 결정되었다. 양측은 이후 서명자들을 구하고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기독교측은 27일 오후 늦게서야 서명자를 확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25일 사이에 선언문을 인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지방에까지 이를 보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sup>32)</sup>

이종일 신문 기록에 의하면, 27일 오후 인쇄를 위해 첫 지형을 뜬 뒤에도 오세창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다(『인종의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3, 14면). 그러나 인종익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3대를 이용해서 인쇄했다는 이종일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시간에 3천 매를 인쇄하는 기계였다는 점이다.

27) 오용섭, 앞의 글, 204~205면.

28) 『이종일 경찰신문조서』, 『3·1독립운동』 1, 54쪽; 『張孝根 경성지법예심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64면; 『김홍규 고등법원예심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4면.

29) 『장효근일기』 1919년 2월 27일자. 『한국사논총』 1(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학회, 1976), 156면.

30) 유병민, 『내 3·1운동의 기록』, 『신천지』 1권 2호, 1946, 111면.

31) 오용섭, 앞의 글, 201면.

32) 만일 유병민이 실제로 24일에 어떤 선언서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2·8독립선언서일 수 있다. 당시 귀국한 유학생들에 의해 2·8독립선언서가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이나 전화하여 성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sup>33)</sup>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27일 오후 9시경부터 밤 11시 사이에 2만 1천 매 정도가 인쇄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인쇄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물론 인쇄 매수가 더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20일부터 25일 사이에 1차로 선언문을 인쇄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목암 비망록』의 이 부분은 이종일이 1925년에 사망한 뒤에 누군가 손을 대어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목암 비망록』은 원본이 분실되어 원문의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목암 비망록』을 근거로 20~25일 인쇄설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앞서 본 오수열의 설처럼 26일에 1차 인쇄, 27일에 2차 인쇄를 하였다는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없는 가공의 설에 불과하다.

#### 4. 독립선언서의 인쇄 과정

그러면 선언문의 실제 인쇄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191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고등법원 신문에서 이종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인쇄한 전말에 대해 말하라.

답 : 인쇄한 것은 27일 오후 5시경 최남선이 내가 사장으로 있는 보성사에 와서 “선언서를 인쇄할 판식(版植 : 인쇄를 위한 활자판)을 만들어 최린의 집에 맡겼으니, 그것을 가서 가지고 와서 인쇄해달라”고 하여, 나는 공장감독인 김홍규를 최린의 집으로 보내 그 판식을 가지고 오게 했다. 그래서 곧 지판(紙版)의 제작에 착수하여 오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사이에 김홍규가 직공(씨명 미상)을 시켜서 약 2만1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것이다.<sup>34)</sup>

문 : 최남선이 가지고 온 조판으로 1매 인쇄를 해보니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식자를 해서 교정을 그대가 보았다는데 그러한가.

답 : 최남선이 짠 그대로는 인쇄할 수 있는 종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를 줄이고 횡으로 길게 만드는 모양으로 해서 내가 고쳐서 판을 다시 짰는데, 1매를 인쇄

33) 『이종일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예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62면.

34) 『이종일 신문조서』(경성고등법원 예심, 제2회) 『3·1독립운동』 2, 91면.

한 것이 아니라 조판 위에 종이를 위에 올려놓고 본 것으로 교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문 : 그 후 선언서의 문장은 숙독하였는가.

답 : 읽어본 일은 없었다.

문 : 그러나 피고인은 전에 예심에서 최남선으로부터 가지고 온 활자판으로 1매 인쇄하여 보니 위아래를 좁히지 않으면 상태가 좋지 않아 활자를 다시 고쳐서 짰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인쇄하여 문장도 읽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답 :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실제 그 문장은 읽어본 적이 없다.

문 : 피고 김홍규는 피고인이 교정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그것을 읽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선언서를 읽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답 : 그것은 선언서 중의 33명의 이름을 읽은 것인데, 그 일은 김홍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sup>35)</sup>

위에서 보면, 최남선이 자신의 신문관에서 활판을 짜서 최린의 집에 가져다 맡긴 뒤, 오후 5시 경에 보성사에 와서 이종일에게 그 활판을 가져다가 인쇄해달라고 말했고, 이종일은 김홍규에게 지시하여 김홍규가 그 활판을 가져왔다고 한다.<sup>36)</sup> 그런데 그 활판은 위아래가 길어서 인쇄할 종이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종일은 뒤에 보듯이 김홍규를 시켜서 활판을 고쳐서 짜도록 하고, 그것으로 지형을 뜨고 연판을 만들어 인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안내 사이트를 보면, 독립선언서에는 보성사와 신문관판이 있다고 되어 있다. 최남선은 26일 자신의 출판사인 신문관에서 활판을 아예 조판해서 보성사측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을 인쇄한 것이 ‘신문관판’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보성사판’은 보성사에서 새로 활판을 조판하여 인쇄한 것이라고

35) 위와 같음.

36) 김홍규가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조판한 것을 최린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종일은 오후 5시 경이라고 말했지만, 보성사의 공장장인 장효근은 6월 20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나는 수감하러 나가서 오후 2시경 보성사에 돌아왔던 바, 李鍾一은 활자를 바꾸어 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장효근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三一運動 IV)). 그러나 오후 2시경에는 아직 기독교측의 민족대표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최남선측의 신문관 조판본에 기독교측 대표 민족대표 명단 30명이 담겨 있었다면, 이는 당일 오후 회의에서 1차 확정된 명단을 통고받고 조판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날 오후 2시경에 신문관에서 조판이 진행되었고, 이것이 최남선-최린-김홍규를 거쳐 이종일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5시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설명한다. 그러나 보성사에서 새로 채자하여 활판을 조판한 것은 아니었다. 신문관에서 조판을 해온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 활자를 그대로 이용하여 활판을 다시 고쳐 짜고 민족대표 명단도 수정 보완한 뒤, 지형을 뜨고 연판을 만들어 인쇄를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일과 김홍규의 신문조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진술을 살펴보자.

#### \* 이종일의 경성지방법원 예심 신문조서

문(판사) : 이것은 피고가 담당하여 인쇄한 독립선언서의 지판인가. (이때 증제259호의 1, 2 및 증제260호를 보이다.)

답(이종일) : 그렇다. 최남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활자판으로 1장만 종이에 인쇄해 보았더니 위아래의 넓이 등 짜임이 좋지 않았으므로 활자를 고쳐 짜서 제259호의 1 지판을 만들게 하고 활자로 인쇄한 것과 대조해보니 대표자의 성명이 서로 달랐으므로 다시 제259호의 2 지판을 만들게 했는데, 오세창이 전화로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청해 왔으므로 제260호의 대표자 성명만의 지판을 만들었다.

문 그러나 제259호의 1 지판에 있는 대표자 중 동호의 2 지판에서 제거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가.

답 그것은 吳世昌에게서 두 번 변경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변경이 된 경위는 나로서는 모른다.<sup>37)</sup>

#### \* 김홍규의 경성복심법원 신문조서

문 : 그 조판을 다시 짤 이유가 있었는가?

답 : 그렇습니다. 이름과 순서 등이 잘못 되어 있어서 동일 활자를 사용하여 두 번 판을 고쳐서 짰습니다.

문 : 그렇다면 그 조판은 최남선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그것을 최린의 집에서 가지고 와서, 성명의 순서 등을 고쳐 짜서 그대로 인쇄에 사용하였다는 것인가?

답 : 그렇습니다.<sup>38)</sup>

37) 『이종일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62면.

38) 『김홍규 신문조서』(경성복심법원) 『3·1독립운동』 2, 258면

**\* 동아일보의 김홍규의 경성복심법원 진술 요약보도**

문: 정판(整版)은 최남선의 인쇄소에서 가져왔다 하니 그런가.

답: 사장(이종일-인용자)의 말이 최린의 집에 그 판 짜놓은 것이 있으니 가져다 박으라 하여 그렇게 하였소.

문: 그 판대로 인쇄하였는가.

답: 이름 몇 자를 고친 일이 있고, 원문은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쇄하였소.<sup>39)</sup>

위의 이종일과 김홍규의 진술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신문관에서 보낸 활판은 보성사에서 미리 준비한 옆으로 길쭉한 종이에 맞지 않아서 보성사에서 활판을 다시 고쳐 짜서 첫 지형을 떼다(증 259-1). 그런데 민족대표의 성명이 잘못 되어서<sup>40)</sup>(사실은 오세창이 전화로 민족대표의 성명을 교체해달라고 해서 고친 것이다), 이를 수정하여 두 번째 지형을 떼다(증 259-2). 그 뒤에 오세창이 또 전화로 민족대표의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해 와서 이름 부분만의 지형(증 260)을 다시 만들었다.” 즉 본문을 다시 채자하여 조판을 한 것이 아니고, 최남선이 가져다 준 활판을 이용하여 조판을 다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종 인쇄된 선언서는 최남선이 가져다 준 활판을 변형해서 인쇄된 것이지, 보성사에서 새로 채자를 해서 새 활판을 만들어 인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의 판사와 최남선의 문답을 참고해보자.

문(판사): 이 독립선언서 지형은 피고가 판을 짜서 준 것에 의하여 만들었다는데 어떤가.

(이때 증 제259호의 1, 2를 보이다.)

답(최남선): 나는 활자를 짜주었을 뿐으로, 그 지형은 보성사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

문: 위 선언서에서 민족대표의 성명의 활자는 이것인가. (이때 증 제262호를 보이다.)

39) 『동아일보』 1920년 9월 22일 4면, 김홍규 진술 부분.

40) 이 부분은 이종일이 거짓으로 말한 것이다. 이종일은 민족대표의 명단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처음에 거론된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압수된 지판을 보면 명단이 두 차례 바뀌지 않았느냐고 묻자, 할 수 없이 오세창의 요청으로 두 번 바뀌었다는 것을 실토했다.



답: 내 집 활자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문: 방금 보인 지형에 의하면 대표자는 31인인데, 이 활자판 및 이 지형에는 33인으로 되어 있고, 사람의 성명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이때 증 제260호를 보이다.)

답: 내 집에서 찼을 때 대표자가 몇 사람이었는지, 또 누구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대표자는 뒤에 변경했다는 말을 들었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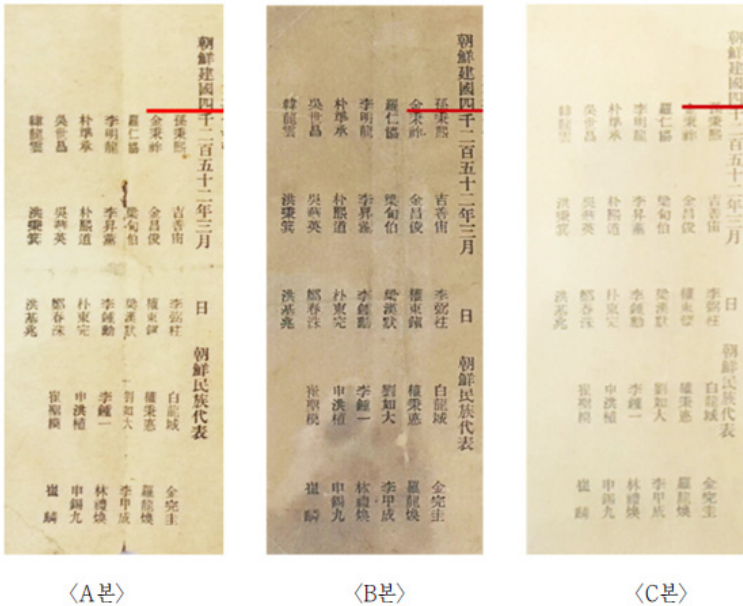
위의 판사의 말과 최남선의 진술을 보아도 역시 이종일과 김홍규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보성사판’과 다른 ‘신문관판’ 선언문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었다. 신문관에서 가져온 활판을 개조하여 지형과 연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독립선언서는 ‘신문관 조판-보성사 인쇄본’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판사와 최남선의 문답을 보면, 최남선이 가져다 준 활판에 실린 명단은 33명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는 함태영에게 “금년 2월 27일에 이종일이 담당하여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최초에는 대표자 중에 김인전, 김지환, 안세환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에는 위 3인을 빼고, 김창준, 백용성, 신석구, 최성모를 넣었고, 세 번째에 박동완, 김병조를 넣어서 결국 33인이 되었는데 (맞는가-인용자)”라고 질문하였다.<sup>42)</sup> 압수된 지형을 참고로 한 판사의 이 말과, 위의 판사와 최남선의 문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족대표 명단과 관련하여 최남선이 가져온 활판을 토대로 만든 지형인 ‘증 제259-1,2’에 실린 민족대표 명단은 33명이 아니었다. 최초의 지형인 ‘증259-1’에는 30명의 명단이 있었고, 이에 김인전, 김지환, 안세환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지형인 ‘증259-2’에는 이들 3인을 빼고, 김창준, 백용성, 신석구, 최성모가 들어가 모두 31명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형인 ‘증260’에는 박동완, 김병조가 추가로 들어가 최종적으로 33명의 명단이 완성되었다.

당시 선언서의 인쇄의 과정은 ‘활판의 수정(위아래의 크기 축소, 일부 명단의 교체와 추가) → 지형 제작 → 연판(鉛版)의 제작 → 인쇄’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문관에서 가져온 활판을 고쳐 짜서 지형과 연판을 만들어 인쇄하게 되었으며, 민족대표의 명단도 두 번 고쳐서, 세 개의 지형이 남게 되었다.

41) 『崔南善 신문조서(제3회)』(경성지방법원 예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20~121면.

42) 『함태영 신문조서』(제3회) (경성지방법원 예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69면.



〈A본〉

〈B본〉

〈C본〉

〈그림 1〉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명단 부분 인쇄의 3가지 유형<sup>43)</sup>

그런데 오용섭 교수에 의하면, 현재 남아 있는 독립선언서 원본들을 살펴보면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오용섭 교수가 제시한 〈그림 1〉에서 보듯이 A, B, C본의 33인의 명단의 위치가 약간씩 다르다. 33인 서명자의 명단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 인쇄된 것과 약간 아래로 내려가 인쇄된 것 등 차이가 있다. 또 〈C본〉의 경우에는 ‘조선민족대표’라고 쓴 줄과 명단 첫 줄 사이의 간격이 A, B본보다 좁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오게 된 것일까.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증거물은 3대의 인쇄기에 건 연판이다. 그러나 이 연판은 경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쇄와 관련하여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은 활판과 지형(지판)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종일이 신문에서 “증 제260호의 대표자 성명만의 지판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이다. ‘증259-1,2’의 지판에는 본문과 명단이 실려 있었지만, ‘증260’의 지판에는 명단만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종일은 왜 명단만 있는 ‘증260’의 지형을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한

43) 오용섭, 앞의 글, 207면에서 전제.

언급이 없다. 결국 당시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먼저 이종일의 지시에 따라 보성사 직원들은 3대의 인쇄기에 걸기 위해, ‘증259-2’의 지형으로 3개의 연판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뒤에 오세창으로부터 또 명단을 수정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그들은 이미 만들어놓은 3개의 연판 가운데 본문 부분은 살리면서, 연판의 성명 부분은 잘라내고 새로 성명 부분의 연판을 만들어 두 개의 연판을 붙여서 인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활판의 성명 부분을 오세창의 주문대로 수정하여 ‘증260호’의 성명 부분만의 지형을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지형을 이용하여 성명 부분의 연판 3개를 만들었다. 결국 각각 3개의 본문과 성명 부분의 연판이 만들어졌고, 이를 3대의 인쇄기에 고정시켜 인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각각의 인쇄기에 2개의 연판을 배열하고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성명 부분이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고, ‘조선민족대표’의 줄과 성명 부분의 줄 사이의 간격도 조금 달라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그림〉처럼 3개의 판본이 남게 된 것은 3대의 인쇄기에서 인쇄하였기 때문이고, 또 각각의 인쇄기에 걸린 2개의 연판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신문관에서 조판해온 활자와 보성사에서 수정한 명단 부분의 활자는 같은 것이었다. 과연 보성사에는 신문관의 활자와 같은 활자가 있었을까. 보성사측에서 수정한 부분은 6명의 명단뿐이며, 이 또한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명단 부분의 한자를 우선 확인해보면, 새로 들어간 김창준의 金, 신석구의 申, 박동완의 朴과 東 등의 한자를, 이미 들어가 있던 명단인 김완규의 金, 박준승과 박희도의 朴, 그리고 본문의 한자 등과 비교해보면, 같은 폰트의 한자임을 알 수 있다. 보성사의 김홍규가 명단의 활자를 교체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하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쪽 인쇄소에는 같은 폰트의 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이른바 ‘신문관판’ 선언서의 정체

위에서 본 것처럼 선언서는 단 한 종, 즉 최남선이 집필하고, 그의 신문관에서 채자하여, 최린을 거쳐 보성사에 전달된 활판으로 인쇄된 한 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를 ‘보성사판’이 아니라 ‘최남선본’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이른바 ‘신문판관’이라는 선언서가 따로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수열은 『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인쇄 경위』라는 글에서 “한편 보성사에서 최린씨 댁에서 찾아온 선언서판을 인쇄하는 동안, 복사된 원고(오세창이 필사한 원고를 말한-인용자)를 새로 조판, 약 4시간여 동안에 선언서판을 만들었고, 찾아온 육당 조판 선언서판이 인쇄가 끝나자 마카오갱지에 27일 밤 인쇄 완료하였다(약 2천 매 정도)”라고 쓰고, 그 근거를 『이병헌 회고담』과 이병헌의 책 『3·1운동비사』 788면을 들었다.<sup>44)</sup> 그러나 『이병헌 회고담』은 어디에 실린 글인지 확인할 수 없고, 『3·1운동비사』 788면에는 그런 대목이 전혀 없다. 해당 페이지에는 최린의 공소공판기록이 실려 있을 뿐이다.

오수열은 또 같은 글에서 “이종일은 26일, 오세창으로부터 인쇄물(교정본)을 보내 주겠으니 인쇄하라고 하였는데, 최린으로부터 자기 집에 보관돼 있는 선언서판의 인쇄물(교정본) 원고를 받았고, 27일 오후 5,6시경 오세창으로부터는 복사된 원고를 받고 인쇄 지시하였다.(2종의 인쇄 원고)”라고 쓰고, 그 근거로서 이병헌의 『3·1운동비사』 392, 396, 522면을 들었다.<sup>45)</sup>

그러면 이병헌의 책 해당 쪽에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392면에는 3월 10일 이종일의 경무총감부에서의 검사의 신문기록이 실려 있는데, 이종일은 여기에서 “2월 20일경 오세창 집에 가니까 동인은 나에게 대하여 인쇄물을 보내주겠으니 그리 알라 하고, 그 후 26일 동인은 나에게 와서 독립선언서 2만 매 가량을 인쇄하여 달라고 하므로 승낙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원고가 왔으므로 2만1천 매를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396면을 보면 7월 21일 경성지방법원예심 예심판사의 신문에서 이종일은 “27일 오후 5,6시경에 오세창이가 원고를 가지고 오게 되어 나는 비로소 독립선언서를 보았으며, 그 원고를 김홍규에게 주어 비밀히 2만1천 장을 급히 인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다. 이종일의 이와 같은 진술을 보면, 27일 오후 오세창이 이종일에게 원고를 주어 선언서를 인쇄하도록 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이병헌의 책 522면에 실린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예심에서 예심판사의 오세창에 대한 신문기록을 보면, 오세창은 “최린이가 이종일에게 원고를 넘겨 인쇄하

44) 오수열, 앞의 글, 36면.

45) 같은 글, 35면.

고”라고만 하였다. 자신이 이종일에게 원고를 주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병헌의 책 520면을 보면, 오세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피고는 독립선언서의 원고를 권동진으로부터 받고 사본을 만든 일이 있는가.

답: 최린으로부터 그 원고를 받고 그것을 베껴서 사본을 권동진에게 건네준 일이 있다.

문: 언제 최린으로부터 그 원고를 받았는가.

답: 잘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2월 25,6일경이었고 그 원고는 최남선이가 기초하였다고 하지만, 글씨로 쓴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문: 권동진에게 넘긴 사본은 그 후 동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가.

답: 그렇다. 돌려왔지만 인쇄한 후 태워버렸다.

문: 선언서는 피고가 베낀 원고에 의하여 인쇄되었는가.

답: 그렇지 않다.

문: 그 사본을 누군가에게 넘겨준 일은 없는가.

답: 그런 일은 없다. 인쇄가 다 된 후에 쓸 일이 없게 되었으므로 태워버렸다.

문: 인쇄가 되었다 하더라도 태워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답: 특별히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이쪽지와 함께 아궁이에 넣어 태운 것이다.<sup>46)</sup>

위의 진술에서 보면, 오세창은 이종일에게 선언서 원고를 넘겨준 일이 없었다. 오세창은 고등법원 예심에서도 판사가 “초고를 가지고 인쇄시킨 것이 아니라 인쇄조판을 했던데 어떤 순서로 인쇄를 시켰는가?”라고 묻자, 오세창은 “나는 단순히 이종일에게 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며, 그 결과 동인이 인쇄를 맡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그것을 어떤 준비를 해서 인쇄를 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하였다.<sup>47)</sup>

또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는 실려 있지 않은 9월 20일자 의 『경성복심법원

46) 이 대목은 『오세창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1, 245면에도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자료를 참고하여 오세창의 진술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병헌의 책에 나오는 진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47) 『오세창 신문조서』(경성고등법원 예심, 제2회) 『3·1독립운동』 2, 78면.

공판시말서』의 이종일에 대한 제1회 신문을 보면, 이종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문 : 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했다고 하는데, 오세창이 그 원고를 보성사에 가지고 와서 그대에게 건네주고, 그대는 이를 김홍규에 명하여 활자 등을 사용하여 2만1천 매를 인쇄하였다고 하는데 틀림없는가?

답 : 오세창이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최남선 쪽에서 활자를 조립하여 이것을 최린이 보성사에 가지고 와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나는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출판과 배포를 담당하였는데, 나머지는 물은 것과 같다.

문 : 오세창이 그대에게 인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답 : 오세창은 최남선 쪽에서 활자를 조립한 뒤에 인쇄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sup>48)</sup>

이종일은 경성복심법원 공판에 와서야 비로소 오세창으로부터 선언서의 원고를 받은 적이 없고, 최남선 쪽에서 조판한 것을 최린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종일은 그 전에는 오세창으로부터 원고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을까. 그것은 최남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의 원고를 썼다는 것은 이미 3월 1일 최초의 경찰 신문에서 최린이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굳이 감출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최남선이 선언서의 조판까지 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최남선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종일은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종일은 ‘민족대표’로 이름을 이미 올린 오세창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조판, 인쇄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4월 9일 경성지법 예심에서 오세창이 이를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는 없게 되었다. 또 최린은 이미 7월 17일 경성지법 예심에서 예심판사의 “독립선언서 인쇄에 대한 조판은 최남선이 담당했다는 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최남선이 담당하여 그 조판을 내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두고 보성사로 간다고 하면서 나왔었는데 조금 뒤에 보성사에서 누구였는지 사람이 와서 최남

48) 『오세창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예심), 「3·1독립운동」 246~247면.

선이 두고 간 것을 달라고 하므로 그것을 주었다.”고 답하였다.<sup>49)</sup> 따라서 이종일은 굳이 더 이상 최남선의 조판 사실을 숨기면서 오세창을 거론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결국 이종일은 9월 20일에 열린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오세창이 원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최남선이 활판을 짜서 보성사에 넘겨주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최남선본’ 1종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른바 ‘신문관판’으로 알려진 독립선언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일까. 1910년대와 20년대에 신문관에서 찍은 여러 책자, 예를 들면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년), 권덕규의 『조선어문경위』(1923년) 등의 활자는 이른바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의 활자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오수열이 소장했던 이른바 ‘신문관판’ 선언서는 1910년대 신문관의 활자로 찍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신문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 3·1운동관련 독립선언서류를 소개한 사이트를 보면, 이른바 ‘신문관판’ 선언서는 서지학자 오수열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선언서는 3·1운동 당시 태화관의 독립선언식이 있던 방의 옆방에 있으면서 현장을 증거하고, 파고다공원과 연락을 취하였던 청년 6명 가운데 1인인 이병헌이 1959년에 『3·1운동비사』를 편찬하고, 오수열 씨에게 맡긴 것이라고 한다.<sup>50)</sup>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문관판’이라는 이름 대신 이를 ‘오수열 소장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병헌이란 인물은 누구인가. 그는 1896년생으로,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천도교 중앙총부 대종사에서 시무를 하고 있다가 3·1운동 당시 특별회계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이후 천도교 쪽에서 활동하면서, 신간회 경성지회 간사로도 참여하였다. 1930년대에는 천도교청년동맹 경성지부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민주당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평택에서 민의원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그는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행정신문사 사장,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시사신보사 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60년에는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sup>51)</sup>

49) 『최린 신문조서(제2회)』(경성지방법원 예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三一運動 1).

50) 김도형, 『3·1운동관련 독립선언서류 해제』.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11.do>).

51) 강진화, 『대한민국인사록』(내외홍보사, 1949), 114면; 강진화편, 『대한민국건국십년지』(건국십년지간행회, 1956), 1062면; 대한연감사 편, 『대한연감 4288년판』(대한연감사, 1966), 709면; 한국정경

이병헌은 1959년 10월 1일자로 시사신보사에서 『3·1운동비사』라는 책을 냈다. 주로 민족대표 33인과 그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16인의 신문조서와 공판기록 등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자료집이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는 독립선언서도 실려 있다. ‘오수열 소장본’과 『3·1운동비사』의 독립선언서를 비교해보면, 띄어쓰기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장이 대체로 같고, 활자까지도 매우 유사하다. 결국 ‘오수열 소장본’은 1910년대의 활자가 아닌, 해방 이후 특히 1950년대의 활자로 찍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수열 소장본의 원래 출처가 이병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50년대에 그가 사장으로 있던 신문사에서 이 선언서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수열에 의하면, 이병헌은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아 또 다시 선언서를 인쇄, 일반 대중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다. 한글 활자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선언서가 인쇄되었는데, 석판(오프셋)인쇄가 많았다.”고 회고하였다고 한다.<sup>52)</sup> 이병헌의 이와 같은 회고로 미루어 볼 때, 해방 직후 혹은 그가 행정신문사, 혹은 시사신보사 사장으로 있을 때 신문사의 활자를 이용하여 선언서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1) 최남선본 독립선언서, 2)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 실린 선언서, 3) 오수열 소장본 선언서의 일부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기로 하자.(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함)

## 1) 최남선본 독립선언서

(전략) 有史以來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 | 我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 | 我民族의 尊榮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 | 我新銳와 獨創으로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 | 노

噫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러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러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러 하면 民族의 良心과 國家의 廉議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러 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 發達

사편,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역대국회의원약력』(한국정경사, 1968), 541쪽; 국회 의사국 자료편찬과편, 『역대국회의원총람』(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194면.

52) 오수열, 앞의 글, 42쪽. 이 부분의 출처는 『이병헌회고담』이라고만 쓰여 있다.



을遂하려하면可憐한子弟에게苦恥의財産을遺與치아니하려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려하면最大急務가民族的獨立을確實케함이니 (중략)

天地의復運에際하고世界의變潮를乘한吾人은아모躊躇할것없으며아모畧憚할것없도다.(하략)

## 2) 오수열 소장 독립선언서

(전략) 有史以來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箝制의 痛苦를嘗한지 今에十年을過한 지라 我生存權의剝奪됨이 무릇幾何이며 心靈上發展의障礙됨이 무릇幾何이며 民族的尊榮의毀損됨이 무릇幾何이며 新銳와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無幾何也.

噫리舊來의抑鬱을 宣揚하려하면 時下의苦痛을擺脫하려하면 將來의脅威를芟除하려하면 民族的良心과 國家的廉議의壓縮銷殘을興奮伸張하려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發達을 遂하려하면 可憐한子弟에게 苦恥의財産을 遺與치아니하려하면 子子孫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導迎하려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獨立을 確實케함이니 (중략)

天地의復運에際하고 世界의變潮를 乘한吾人은 아모 躊躇할것없으며 아모畧憚할것없도다. (하략)

## 3)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 실린 독립선언서

(전략) 有史以來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箝制의 痛苦를嘗한지 今에十年을過한 지라 我生存權의 剝奪됨이 無幾何이며 心靈上發展의 障礙됨이 無幾何이며 民族的尊榮의毀損됨이 無幾何이며 新銳와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無幾何也.

噫리舊來의抑鬱을 宣揚하려하면 時下의苦痛을 擺脫하려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하면 民族的良心과 國家的廉議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發達을 遂하려하면 可憐한子弟에게 羞恥의財産을 遺與치아니하려하면 子子孫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導迎하려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獨立을 確實케함이니 (중략)

天地의復運에際하고 世界의變潮를 乘한吾人은 아모 躊躇할것없으며 아모畧憚할

### 것없도다.(하략)

위에 인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선언서를 비교해보자. 우선 단어에서 몇 군데 차이가 있다. 1)에서는 ‘박상(剝喪)’ ‘선창(宣暢)’ ‘징판(懲辦)’ ‘병합(併合)’ ‘사억만지나인(四億萬支那人)’이라 한 것을, 2)와 3)에서는 ‘박탈(剝奪)’ ‘선양(宣揚)’ ‘징변(懲辦)’ ‘합병(合併)’ ‘사억지나인(四億支那人)’이라 하였다. 또 1)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2,3)은 띄어쓰기를 했는데, 2)와 3)은 띄어쓰기를 한 곳이 대체로 비슷하다.

표기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에서는 초성에 ㅅ, ㅆ, ㅈ 등이 들어가는 글자가 나오지만, 2)와 3)에서는 이를 전혀 쓰지 않고 ‘까지, 또, 따름, 뿐’ 등으로 표기하였다. 또 1)에서는 ‘업도다’ ‘업스며’ ‘하얏다’라고 표기한 것을 2)와 3)은 ‘없도다’, ‘없으며’ ‘하였다’라고 표기하였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1919년 당시까지는 ‘업도다’ ‘업스며’ 등의 표현이 일반적이었고, ‘하였다’와 같은 쌍시옷 받침의 표기는 1933년 한글철자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비로소 등장했다고 한다. 실제 1920년대 동아일보 신문을 살펴보면 ‘하였다’와 같은 표기는 없었다. 따라서 2)와 3)은 한글철자법이 나온 1933년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sup>53)</sup> 또 2)와 3)은 바뀐 단어와 표기법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같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1)과 2)에서는 ‘~하야’, ‘안인가’, ‘하야금’ 등으로 표기된 것이, 3)에서는 ‘~하여’, ‘아닌가’, ‘하야금’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2)는 3)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보면, 1)은 1919년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고, 3)는 1959년에 출판된 이병헌의 책에 실린 것이니, 2)는 이보다 앞서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 사이에 3)을 만든 이와 같은 사람, 즉 이병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뒤에 부록으로 붙인 사진을 보면, 활자 모양에서도 1)과 2),3)은 크게 다르고, 2)와 3)은 매우 유사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오수열 소장본은 1919년에 인쇄 배포된 이른바

53) 오수열은 1991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남선은 이미 당시에 주시경이 주장하던 된소리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까지, 또, 따름, 뿐’ 등으로 표기했다면서, 자신이 소장한 2)가 원본이며, 1)의 모양을 띤 박종화 소장본은 해방 이후 鉛版으로 재인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91년 2월 27일 「기미독립선언서 진본 아니다」). 그러나 1919년 신문관에서 펴낸 『청춘』 15호에 실은 최남선의 「稽古箴存」이라는 글을 보면 ‘하야도’ ‘ㅆ’ 등을 그대로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관관’ 선언서가 아니라, 이병헌이 약간 수정하여 1945년부터 『3·1운동비사』를 쓴 1959년 사이에 인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오수열 소장본은 ‘이병헌 수정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오수열은 자신의 소장본이 최남선이 쓴 원고대로 인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7년에 민족정신선양회에서 낸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생전에 감수한 ‘독립선언서’의 원안에 기초하여 펴낸 것이었다는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박상’과 ‘선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sup>54)</sup> 따라서 오수열 소장본이 최남선의 원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신문관관 선언서’라고 불려온 오수열 소장본은 1919년 당시에 인쇄된 선언서가 아니라, 해방 이후 1950년대 말 사이에 인쇄된 선언서라고 추정된다. 1919년 당시에 인쇄된 선언서는 최남선이 쓰고 그의 신문관에서 조판한 뒤, 보성사에서 인쇄한, ‘최남선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언서 1종밖에 없었다.

## 6.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핀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밤 21,000부 인쇄되었을 뿐, 그 전에는 인쇄된 적이 없었다. 이종일이 썼다고 전하는 『목암비망록』에는 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따로 1만여 부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24일 밤이었고, 25~27일 사이에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민족대표의 명단이 들어간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담당한 보성사 사장 이종일, 직원 김홍규는 재판과정에서 모두 27일 밤 21,000매를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보성사 공장장 장효근도 일기에서 역시 27일 밤에 21,000매를 인쇄했다고 썼다. 따라서 『목암비망록』의 기록은 이종일이 세상을 뜬 뒤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현재 『목암비망록』의 원본도 사라진 상태에서 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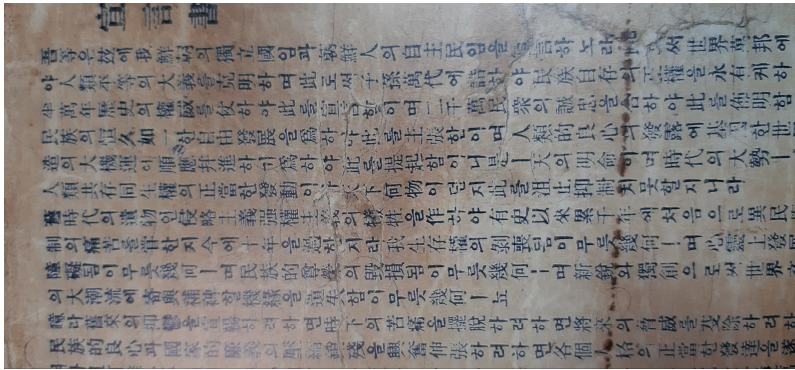
54) 민족정신선양회, 『獨立宣言書』, 1967. (천도교도 김성황씨 소장). 최남선은 1957년에 사망했다.

은 더욱 믿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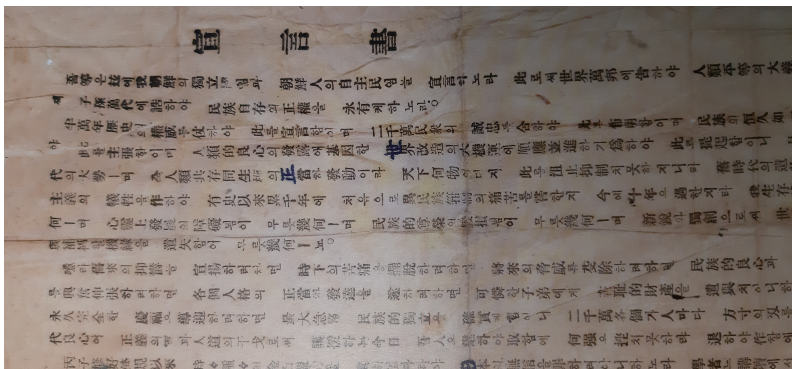
둘째, 3·1독립선언서는 2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조판하고 천도교의 보성사에서 이종일이 인쇄한 1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선언서에 2종이 존재한다는 오수열의 주장은 이종일이 재판과정의 초기에 자신은 오세창으로부터 독립선언서의 원고를 받아 이를 보성사에서 조판하여 인쇄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을 사실로 믿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종일은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조판하여 보성사에 전달해준 활판으로 인쇄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았다. 이종일이 이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최남선이 중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였다. 그러나 오세창이 자신은 이종일에게 원고를 넘겨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린도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조판한 활판을 이종일에게 넘겨주어 그것으로 인쇄를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이종일의 거짓말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결국 이종일도 뒤에는 사실대로 실토하고, 전에 자신이 말했던 것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종일이 오세창의 원고를 받아다가 보성사에서 따로 조판, 인쇄한 선언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수열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선언서가 최남선이 조판해온 ‘신문관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병헌으로부터 넘겨받아 소장하고 있던 선언서는 신문관의 활자가 아니었으며, 띄어쓰기와 철자법 등에서 볼 때에도 1933년 한글철자법이 나온 이후에 인쇄된 것이었다. 이병헌은 1959년에 『3·1운동비사』라는 책을 썼고, 여기에 독립선언서를 실었는데, 이 선언서는 최남선 조판본과 상당히 다르다. 몇 군데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고, 띄어쓰기와 현대식 철자법을 구사하여 쓴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선언서는 그가 오수열에게 넘겨주었다는 선언서와 활자, 철자법, 띄어쓰기에 거의 같다. 따라서 오수열 소장본은 이병헌에 의해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 사이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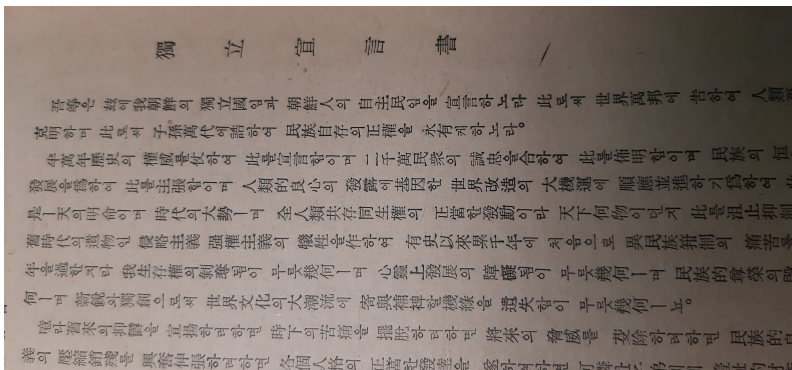
## 〈부록〉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선언서(신분관에서 조판하고 보성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추정)



■ 전도고 도서관 소장 독립선언서 (오수열 소장본과 같은 종류)



■ 이병현, 『3·1운동비사』, 시사신보사, 1959, 69면.

## ■ 참고문헌

### 1. 자료

- 『동아일보』 1920년 9월 22일 4면.  
『장호근일기』 1919년 2월 27일자. 『한국사논총』 1, 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학회, 1976.  
『조선일보』 1986년 3월 1일 『67년만에 밝혀진 기초 인쇄 배포 비화』.  
강진화,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1949.  
강진화 편, 『대한민국건국십년지』, 건국십년지간행회, 1956.  
국가편찬위원회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990.  
국회 의사록 자료편찬과편,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대한연감사편, 『대한연감 4288년판』, 대한연감사, 1966.  
민족정신선양회, 『獨立宣言書』, 1967. (천도교도 김성황씨 소장).  
市川正明編, 『3·1독립운동』 1,2(原書房, 1983), 1984.  
한국정경사편,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 - 부록 -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8.

### 2. 저서

-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19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신보사, 1959.

### 3. 논문

- 김양선, 『3·1운동과 기독교계』 『3·1운동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박춘석, 『옥파 이종일』, 태안향토문화연구소, 2008.  
오용섭, 『‘3·1독립선언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017.  
오수열, 『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인쇄 경위』 『인쇄계』 137호, 1986년 3월.  
유병민, 『내 3·1운동의 기록』 『신천지』 1권 2호, 1946.  
이정은, 『국가지정기록물이 된 3·1운동 독립선언서』 『기록인』 vol.34, 2016.

## A Review of the Printing Process and Editions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19

Park, Chan-seung\*

This study review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printing date and the number of initial copies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19 and the claims that there exist two editions of the declaration, namely the “Boseongsa edition” and “Sinnungwan edi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only printed in 21,000 copies on the night of February 27, 1919. *The Memoranda of Mugam*, known to have been written by Yi Jong-il, contains a record saying that 10,000 copies were separately printed from February 20 to 25, but this is not reliable. It was the night of February 24 that Cheondoist and Christian groups decided to unite and develop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list of 33 national leaders was completed from February 25 to 27; it is therefore hardly likely that the declaration including the list had been printed earlier than the dates. In fact, both Yi Jong-il, the president of Boseongsa, and his employee Kim Hong-gyu, who printed the declaration, said that 21,000 copies were printed on the night of February 27 during the trial. Jang Hyogeun, the manager of Boseongsa’s printery, also wrote in his diary that they printed 21,000 copies on the night of the day. Thus, it seems clear that the declaration was printed in 21,000 copies on the date, not on earlier days.

Second,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oes not exist in two editions, but only one edition typeset in Choi Nam-seon’s Sinnungwan and printed by Yi in Boseongsa, a Cheondoist printing house. O Su-yeol’s assertion about two editions of

---

\* Hanyang University

the declaration was grounded on Yi's false statement made at the early stage of the trial: he said that he had received the manuscript from O Se-chang and typeset and printed it in Boseongsa. Yi intended to hide the fact that Choi Nam-seon had typeset the declaration in Sinmungwan and delivered the printing blocks to Boseongsa so that Yi would print the declaration, in order to spare Choi severe punishment. However, O Se-chang stated that he had not delivered the manuscript to Yi, and Choi Rin also testified that Choi Nam-seon had given the printing blocks made in Sinmungwan to Yi, who printed the declaration by using them. With this, Yi's false statement lost its footing and he finally confessed the truth and denied his previous statement. Thus, it is not true that there is another edition of the declaration typeset and printed in Boseongsa by Yi using the manuscript that O Se-chang had brought to him.

O Su-yeol insisted that the copy of the declaration that he had owned since its acquisition from Yi Byeong-heon was the Sinmungwan edition typeset by Choi Nam-seon. However, given that the declaration included in Yi Byeong-heon's *Unknown Histo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one in O Su-yeol's collection are almost identical in terms of word use (some words used differently from those in the original), spelling, spacing, etc., the declaration that he owned is highly likely to have been created by Yi Byeong-heon between 1945 to the 1950s.

Keywords: March 1<sup>st</sup> Movement,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oseongsa edition, Sinmungwan edition, Yi Jong-il, Choi Nam-seon, O Se-chang, Yi Byeong-heon, O Su-yeol